



2022. 12. 9 (금)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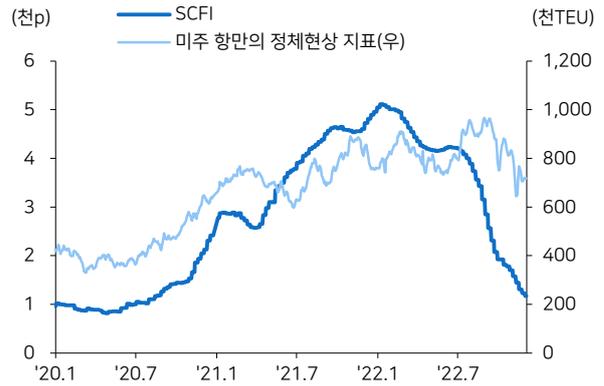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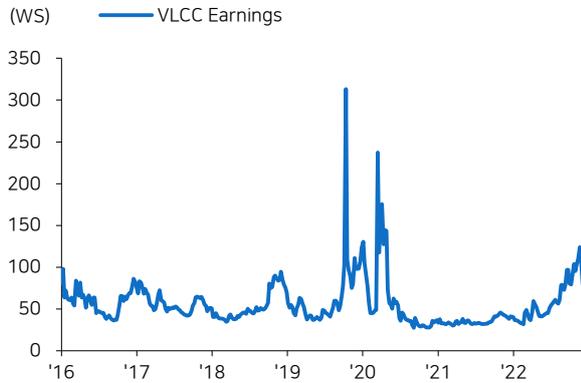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85.0p(+12.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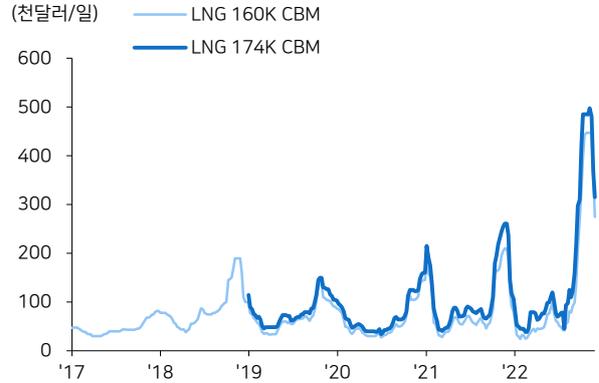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71.4p(-58.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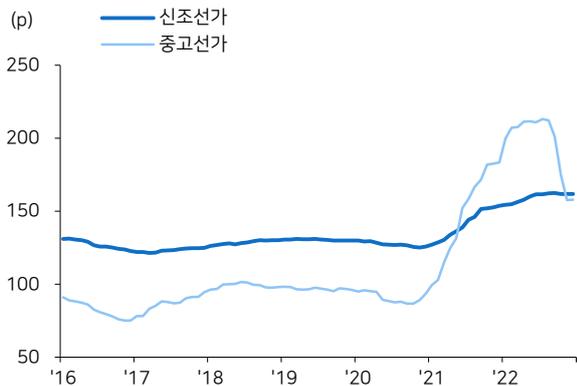
VLCC Spot Rate 79.6p(-28.0p WoW)



LNG Spot 운임 275.0p(-90.0p WoW) 315.0p(-5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0p WoW) 157.8p(+0.5p WoW)



항공시장 지표 247.9p(-1.1p DoD) 96.7p(-1.4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트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의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2,500억원 소송 패소에 항소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던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2,500억원대 계약금 소송에서 진 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보도됨. 아시아나항공은 2천177억원, 금호건설은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알려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년 11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고, 지난 11월 승소한 바 있음. (연합뉴스)

'도착보장 서비스 제공'...CJ대한통운·카페24 풀필먼트 연동 맞손

CJ대한통운이 카페24와 '온라인 쇼핑물 사업자 대상 풀필먼트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보도됨. 도착보장 등 특화배송 서비스 구축, 국제특송 경쟁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고 알려짐. CJ대한통운은 카페24와 협력해 2023년 1월부터 고객들에 보장일에 배송하는 '도착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짐. (뉴스1)

현대중공업 임단협 합의안 4표 차로 부결...대우조선은 가결

현대중공업의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찬반 투표에서 4표 부족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보도됨. 반면 대우조선해양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통과됐다고 알려짐. 현대중공업은 2차 잠정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재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짐. (동아일보)

KSOE faces Hyundai Samho Heavy Industries IPO deadline

한국조선해양의 현대삼호중공업 IPO 기한이 2024년말까지로 알려짐. 2017년 IMM PE는 지분 15.5%에 해당되는 3억달러(4,000억원)를 투자한 바 있음. IMM PE는 한국조선해양의 지분 형태로 1,400억원도 받은 바 있음. IPO에 실패한다면 한국조선해양은 이자를 포함해 2,6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알려짐. 2023년에 예비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됨. (Tradewinds)

Landmark German LNG import facility faces one-month delay

독일의 첫 FSRU의 가동일이 정부규제로 한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도됨. TotalEnergies-Deutsche ReGas는 동북지역 LNG수입을 위해 Neptune FSRU를 용선한 바 있음. 기존 가동 예정일은 12월 1일이었음. 독일 연방에너지부의 승인은 받았으나, 지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Deutsche Regas는 가동일은 12월말로 재조정했다고 알려짐. (Upstream)

TC Energy confirms emergency Keystone pipeline shutdown after oil spill

캐나다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인 TC Energy가 기름유출로 622,000BPD규모의 Keystone Pipeline System 긴급 가동중단을 발표했다고 보도됨. 12월 7일 저녁에 확인되어 회사는 불가항력을 선언했다고 알려짐. 구체적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언급됨. (Upstream)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